

신혜수 • Hye soo Shin

안녕하세요 신혜수입니다.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이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성취와 기쁨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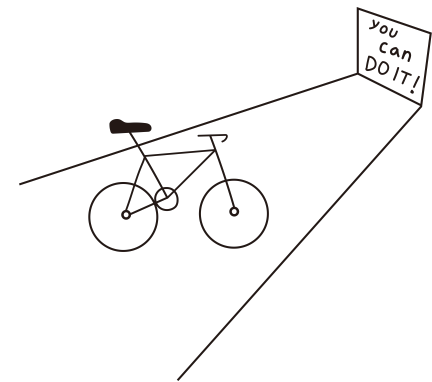
저는 두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였지만 그 사고는 오랜시간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대학교를 대전에서 다니던 저는 친구와 점심을 먹고 집에 가던 중 우연히 '타슈'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따릉이' 광주에서는 '타랑께' 로 불리는 공공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를 타자는 친구의 제안에 저의 어릴 적 사고를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타지 못한 채 친구가 공원에서 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는 달리 즐겁게 자전거를 타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자전거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 호기심 뒷면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스스로의 두려움과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자전거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전거를 능숙히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자전거를 대하는 제 태도와 시각은 바뀌었습니다.

이 경험은 어떠한 도전에 있어 제게 큰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하나의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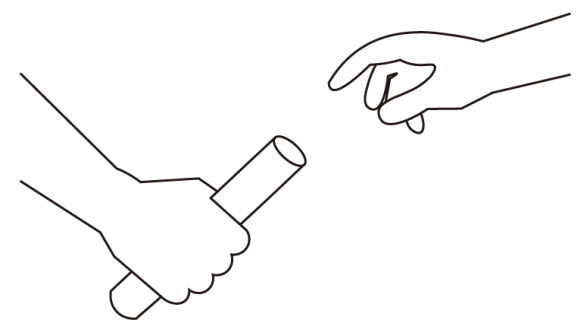
사소한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편리함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펀딩 프로젝트의 상세페이지 기획 및 구성을 맡아 6328%의 달성률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특별한 디자인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만들어 낸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비자의 사소한 불편함에 공감하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는지 설명하여 제품의 가치를 증명하는 구성을 꾸려나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스토리를 많은 소비자분들이 공감해 주시며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웹 디자인 업무에서도 사용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 → 편리함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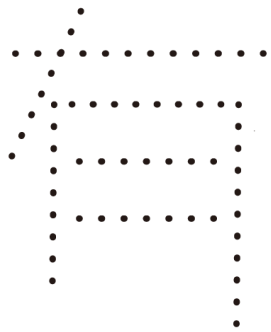
저는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관찰력과 실행력 입니다. 대학시절 SPA브랜드의 VMD파트에서 1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업무는 매장의 진열을 구성하고 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불현듯 '저 뒤에 있는 우산 진열대를 사람들의 동선과 많이 겹치는 쪽에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우산 진열대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변경 후 우산의 판매량은 눈에 띄게 늘었고 추후 우천 시 구현 사항의 좋은 예로 칭찬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장점은 저에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관찰력이 지나치게 외부 것을 향해 쏠려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에 대한 백문 백답을 적어보곤 합니다. 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금씩 적다 보면 제 자신과 많이 친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저의 관찰력과 실행력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사고를 결과로 표현하는데 있어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onnecting the dots!



어린 시절 일요일 아침마다 디즈니를 보며 '주인공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릴 적 작은 소망은 제가 TESOL 영어과를 진학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습니다. TESOL이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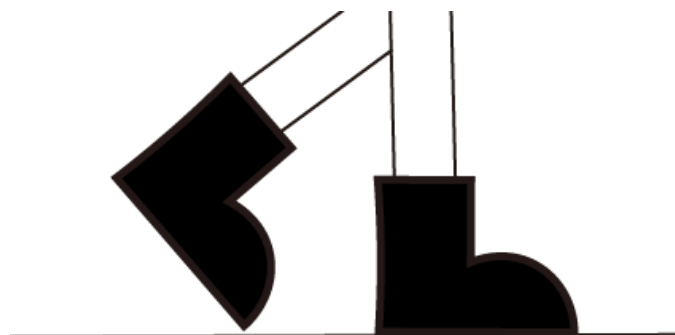
어린시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며 도움을 준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르침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저를 더욱 기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여 디자인과 그림을 좋아했던 저는 이 두 가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e dots'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순간에는 관련성에 대해 알 수 없는 일들이 추후에는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일들처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HTML, CSS, Javascript를 공부하며 학부시절 4년 동안 접했던 영어는 적절한 변수명을 정하거나 메서드에 대한 원문 설명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배움에 있어 하나의 연장선을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아닌 어디로 가느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웹 디자이너는 이 가치와 부합하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심미적인 요소를 넘어 사용자가 지속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줄여가기 위한 노력으로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좋아하는 브랜드의 사이트를 방문하며 어떤 점이 좋은지 또는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살펴보고 따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작업물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늘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워나가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이러한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이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댄들을 뚫는 낙숫물

"낙숫물이 댄들을 뚫는다"의 뜻은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면 결실을 맺는다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의 첫 시작의 단추는 기업의 구성원으로 완벽히 적응하는 것입니다. 직무 환경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도전과 열정의 자세로 회사의 빠른 발전에 발맞춰가는 것입니다. 실무를 통한 배움을 통해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고 배려하며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배움에 있어 두려움과 한계를 두지 않고 공부와 경험을 통해 조직의 핵심 일원으로 앞장서고 싶습니다. 10년 안에는 제 분야의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는 것 외에도 퍼블리셔의 영역을 더 넓혀 폭넓은 기량을 가진 댄들을 뚫는 낙숫물 같은 사람이 되어 저와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함께 일하며 조직의 발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Contact



dontkillmyvibz@gmail.com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신혜수 All rights reserved.